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0. 16.(금) 06:00 (지면) 2026. 10. 16.(금) 석간 배포 2026. 10. 15.(목) 14:00

섬 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뱃길, 운항결손금 지원으로 쉽없이 이어간다

-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 대상으로 '제주-추자-완도' 항로 추가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6일(금) '2026년도 하반기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복을 지원하고, 적자 항로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민간 선사의 운항결손금 일부를 지원하는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3곳과 적자 항로 10곳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아 학계와 연구 기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항로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추자-완도 항로를 추가로 선정했다.

해당 항로는 (주)송림해운의 송림블루오션호가 2024년 5월부터 운항하고 있으며, 여객과 차량, 생활필수품 등을 수송해 추자도 주민의 교통과 생활 물류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취항 이후 운항 결손이 이어져 최근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추자도에 기항하는 다른 여객선인 산타모니카호는 1톤 이하 차량만 실을 수 있지만, 송림블루오션호는 최대 25톤의 차량까지도 실을 수 있어 해당 항로의 운항이 중단될 경우 주민 이동과 생활 물자 수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항로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운항 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곳에 살아도 필요한 곳으로 쉽게 이동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섬과 육지를 잇는 뱃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적자 항로를 지원해 섬 주민의 교통권과 일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심상철 (051-773-5730)
		담당자	서기관	한정수 (051-773-5731)

참 고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지원 항로 현황

□ 1일 생활권 구축 항로

항로	선사명	선박명	기항지
백령-인천	(주)고려고속훼리	코리아프린세스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
장봉-삼목	(주)세종해운	세종9	신도, 장봉도
가거-목포	(주)남해고속	뉴퀸	가거도, 만재도

□ 적자 항로

항로	선사명	선박명	기항지	지원 기간
여수-함구미	(주)신아해운	한려페리 9호	제도, 개도, 자봉, 송고, 함구미	'25.12.1. ~ '26.11.30.
여수-둔병	(주)태평양해운	태평양 1호	백야, 여석, 모전, 하화, 상화, 사도, 낭도, 둔병	
통영-당금	(주)한솔해운	한솔 2호, 한솔 3호	한산도, 비진내항, 비진외항, 소매물도, 대항, 당금	
통영-욕지	(주)대일해운	가자바다로호, 욕지호	연화도, 우도, 욕지도	
통영-용초	한산농협	한산농협 카페리2호	한산도, 용초, 호두, 죽도, 좌도, 비산, 화도	
대부-이작	(유)대부해운	대부아일랜드호	대부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	
인천-덕적	(주)고려고속훼리	코리아익스프레스 카훼리	덕적도	
당목-서성	완도농협	완농페리 5호	생일도, 금일도	
땅끝-산양	노화농협	노화카훼리 7호	산양, 흑일, 횡간, 넓도	
흑산-가거	(주)남해고속	핑크돌핀호, 뉴엔젤호	흑산도, 태도, 가거도	'26.6.1. ~ 11.30.
(신규)제주-추자-완도	(주)송림해운	송림블루오션호	제주도, 추자도, 완도	

* 항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 내 정보-여객선 운항정보 항로조회에서 확인 가능